**로 ﷽﷽﷽﷽﷽﷽﷽﷽5:12entant for the forgiveness from God.누가복음 공부 – 8 (누가복음 16:1-13)**

**누가복음 16:1-13 (불의하고 부정직한 청지기 비유)**

**1. 이야기에 대한 상세한 이해 (문화적, 사회적인 면)**

불의하고 부정직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는,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비유들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까다로운 비유라 하겠다. 전답의 올곧은 주인이 자신의 부정직하고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했기 때문이다.

1) 비유의 주인은 자신의 땅을 여러 경작인들에게 빌려 주는 계약을 문서로 작성하는데, 해마다 경작인들로 부터 일정량의 소출을 받는 것으로 확정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땅을 대여해 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인은 자신이 정한 급여를 주는 청지기를 고용하여 자신의 경작인들과 상대하며 자신의 경작지에 관련된 재산을 관리하게 하였다.

2)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서 일정한 급료를 받는 것은 물론이요, 주인 몰래 자신이 직접 상대하는 경작인들에게서도 주인과의 계약을 그들이 성사할 때 마다 따로 수고비를 챙겼다. 그의 이러한 행적은 당연히 주인과 자신 사이의 계약서에서도, 또한 주인과 개개의 경작자들과의 계약서에도 전혀 명시된 사항이 아니다.

3) 이 전답의 주인되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자신의 재산을 제대로 철저히 관리하며, 그와 한 약속을 어기는 불의를 저지른 대상을 그대로 눈 감아 주지도 않아 존경받을 만한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각인 되어있다.

4) 주인이 자신의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그 청지기를 불러서, 자신의 경작지에 관한 재산관리 장부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청지기에게 명령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로 그를 해고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불려 온 청지기는 한 마디의 말도, 변명도, 자비를 구하는 간구도 하지 않았다. 청지기는 자신의 불의하고 부정직한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단지 주인의 처분을 그대로 받아 들인 것이다. 그가 해고 당한 뒤, 즉시로 장부를 주인에게 돌려 드리기로 한 그 때까지의 일련의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것은 다음과 같다: 주인은 자신의 땅에 따른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고, 성실한 반면에,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였으며, 불의한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주인은 청지기를 해고만 했을 뿐, 그러 인해 자신이 당한 경제적 손실을 그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고, 또 그를 감옥에 넣게 하지도 않았다.

5) 주인이 보인 이러한 어마어마하게 넒은 자비심과 금전적으로도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태도는 청지기로 하여금 다른 걱정 전혀 없이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지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 준 셈이다. 주인의 인격을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가) 주인은 자신과 멪은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청지기에게 요구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청지기의 불순종과 불법을 결단코 묵과하지 않으며 정당하게 결정하고 그를 해고해 버린다; (나) 불의한 청지기를 해고하면서도, 주인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불의한 청지기에게 자비를 베풀고, 청지기에게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고 요구 하지도 않아 경제적으로도 너그러운 태도를 견지한다. 당장 닥친 위기를 극복하려, 청지기는 자신의 장래 계획을 심사숙고하게 된다. 자신이 육체적 노동을 하기에는 약하다는 것을 알기에 노동을 하고 살 수 없음을 인정했다. 또한 자신의 사회적 체면 때문에라도 타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구걸하며 살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면서도, 그 지역에서 지금껏 유지하고 있던 자신의 체면도 챙길 수 있을만한 하는 계획을 세우려 고심했다. 결국, 이 청지기는 자신을 해고한 주인의 경제적으로 손해배상하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자신을 가혹하게 법에 따라 정죄하고 감옥에 넣어 버리지도 않은 그 자비로운 인격만을 무조건 믿어 보고, 자신의 계획을 수립하려 고심했다.